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29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 만성병관리팀장 김성미 ☎440-1591 • 담당자 최수연 ☎440-159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짝수년도 출생자 올해 국가암검진 꼭 받으세요**  
**“6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 ·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인 ‘짝수년도 출생자’에게 검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인 암은 인천에서 매년 약 12,0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의 남·여 암 사망 1위는 ‘폐암’이며, 암 발생률의 경우 남성은 위암, 여성은 갑상선암이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은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생활요인, 환경 및 유전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발생하므로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암검진(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

부암, 폐암)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조기에 진단, 치료까지 이어지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은 ‘작수년도 출생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하위 50%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0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02,500원 이하)는 무료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년도에 암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신청하면 올해 12월까지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 1577-1000)

시는 지리적 특성상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의 암 검진율을 높이하고자, 오는 7월부터 8월에는 ‘인천지역암센터’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섬에 방문해 암검진 뿐만 아니라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인천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국가 암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 등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 국가암(6대암) 검진 프로그램



위암

- 검진대상 만 40세 이상 남녀
- 검진주기 2년 간격으로 실시
- 기본검사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폐암

- 검진대상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sup>1)</sup> 해당자
- 검진주기 2년 간격으로 실시
- 기본검사 저선량 흉부 CT촬영 기본 검진



간암

- 검진대상 만 40세 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sup>2)</sup> 해당자
- 검진주기 6개월 간격으로 실시
- 기본검사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 검진대상 만 50세 이상 남녀
- 검진주기 1년 간격으로 실시
- 기본검사 분변잠혈검사<sup>\*</sup>  
\*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내중조영검사



유방암

- 검진대상 만 40세 이상 여성
- 검진주기 2년 간격으로 실시
- 기본검사 유방촬영술 및 임상진찰



자궁경부암

- 검진대상 만 20세 이상 여성
- 검진주기 2년 간격으로 실시
- 기본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 
- 1)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항원 양성 또는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